

전통문화전당 상주단체 '합굿마을'

성과공유워크숍 전북 대표단체 선정

한국전통문화전당 상주단체 합굿마을이 전국 우수사례 성과공유 워크숍에서 전북도 대표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은 공연장 상주단체 합굿마을문화생산자협동조합(대표 김영명)이 지난달 30일 '전북도 성과공유워크숍'에서 도 대표단체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오는 15일 전주 로니관호텔에서 개최되는 '2016년 지역협력사업 성과공유 전국워크숍'에서 공연장 상주사업 우수사례로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전북도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전북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은 올해 5월 도내 공연장 6곳이 선정되고, 각 공연장에 상주하는 문화예술단체 8개 팀이 선정돼 지원이 이루어졌다. 도내에서는 한국전통문화전당과 부안예술회 2개 단체, 나머지 4곳은 각각 한 곳의 문화예술단체를 운영해 왔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은 단체의 실적·양적 성장보다, 공연장과 단체가 얼마나 협력사업을 통해 발전하고 있는지, 도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얼마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전당 상주단체 '합굿마을'은 올해 창작공연 1개, 기획공연 3개, 관객개발 2개 작품을 물론 3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40회의 공연(체험 12회 포함)을 열었다. 공연일수만도 29일(체험 4일 포함)에 달하는

전당서 모든걸 즐기는 한문화 패키지 상품 개발

창작공연 '전주 8경' 서 실험적 무대 선보이기도

등 지역사회 공연의 질적 향상과 지원에 이바지해왔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공연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획부터 홍보까지 전반의 업무를 지원했다.

특히 상주단체 운영으로 문화향유 기회가 늘어나면서 지역주민 3000여 명이 합굿마을의 공연과 체험에 참여하는 등 전당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 한해 공연 및 행사로 전당을 방문한 5만7000여명에 대비하면 5%의 정도의 인원이 상주단체로 인한 방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5만3000여명 대비 4000여명이 더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전당의 최대 이점인 한 공간에서 음식, 공연, 체험을 모두 즐길 수 있다는 점에 착안, 합굿마을과 '한문화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기도 했다.

또한 관광객의 발걸음을 유도하기 위한 창작공연 '전주 8경'은 전주의 대표 이미지를 배경으로 국악과 미디어, 스토리가 결합된 융복합 공연으로, 3대의 프로



전통문화전당 상주단체 합굿마을이 전국 우수사례 성과공유 워크숍에서 전북도 대표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젝트가 '미디어 파사드'와 같은 무대 배경을 연출하며 국악과 함께 하나의 공연으로 자리잡는 실험적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다.

상주단체로 인해 올해 전당은 불거리가 가득한 한해가 되었다. 상주단체 '합굿마을' 뿐만 아니라 타악연희원 '이취'(대표 박종대)를 함께 운영하며 두 단체 통산 103회의 공연과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김동철 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은 물론 지역주민의 문

화 향유 기회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보다 올해보다 더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굿마을'은 지난 7월 23일 전당 야외마당에서 첫 선을 보인 '연희공연기적'을 통해 전북의 대표적인 전통예술인 '전주 기적놀이'를 공연화했고, 전주 기적놀이 보존회 마을 주민들과 함께 '제 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전, 영예 1위를 차지하며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영재 기자

전통문화전당 2대 원장 채용 공모

한국전통문화전당은 현 김동철 초대 원장의 임기가 14일 만료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2대 원장 채용을 위한 공모 접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비전을 갖추고 문화예술사업과 축제 등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경영능력과 혁신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아울러 예술단체, 문화예술관련 법인, 문화시설 등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지방공무원법상 채용·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응모지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와 함께 '한국전통문화전당의 발전방향 및 운영'에 관한 직무수행계획서를 A4 10매 내외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후임 원장 응모기간은 오는 19일~28일까지며, 총 7명의 심사위원회(이사 4명, 외부전문가 3명)가 1차 서류·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적임자를 선정하게 된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내년 2월 1일부터 2019년 1월 말까지 2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통문화전당 사무국 경영지원팀(063)281-1562. /김영재 기자·정혜은 기자

▶▶ 공연 & 전시 ◀◀

17일 군산근대역사박물관서 '근대의상 패션쇼'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 오는 17일 오후 3시 박물관 1층 로비에서 '제1회 근대의상 패션쇼'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박물관 근대의상 패션쇼는 군산 근대사업의 민족적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박물관과 군산시의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기획했다.

근대의상 패션쇼는 근대기 생활문화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근대의상, 군산 벨벳단 여학교·이화여학교·정동여학교·송의여학교 등 근대기 다양한 교복과 교복을 현대화한 의상, 근대기 평민의 의복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진다.

이번 패션쇼는 일선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한국 근대기의 다양한 의상 40여벌을 선보이는 자리로, 이는 박물관과 천연염색공간 선(대표 이혜숙)의 협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근대역사와 패션이 융합한 문화행사답게 다채로운 볼거리도 제공된다.

박물관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군산영양교과 합창단과 박물관 연극팀 30여명이 모델로 참여해 패션쇼에 생동감을 불어넣을 예정이며, 패션쇼와 결들여진 '오상영 밴드 공연', '근대의상 포토제닉 이벤트' 등 각종 공연 및 이벤트로 문화복합공간의 장이 펼쳐진다. /군산=문정근 기자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 구축·여성능력개발 토대 형성”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올 사업성과 보고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신수미 센터장)는 올 한해 전북여성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소기의 경영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교육·취업·양성평등·문화·네트워킹 등 5개 분야 대한 지원사업 실시로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 구축 및 여성능력개발·경제활동의 토대를 형성하는데 일조했다고 자랑했다.

센터는 이들 사업 중, 취업지원 분야의 경우에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설명했다. 센터의 구인구직 발굴·취업지원·직업교육을 통해 4,435명의 취업을 성공시켰으며, 이중 2,656명(59.8%)은 상용직으로 취직했고 기업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160명의 교육생 중 145명(91%)이 일자리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이런 취업을 성과로 센터의 수탁기관인 전북세일센터는 '2016년 전국 세일(세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 및 평가에서 상위 10%만 받을 수 있는 최고등급인 A등급에 선정되었다. 특히 사업수행역량, 상담서비



스, 직업훈련 및 인턴운영, 취업성과, 사후관리, 고객만족도 6개 평가영역에선 모두 A등급을 받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네트워킹 분야의 경우, 올해로 11년째 진행되고 있는 전북여성화요간담회는 173명의 회원들이 매주 첫째 주 화요일 다양한 주제로 정례모임을 109번째 이어가고 있다. 모임은 국회의원 당선자, 지역 여성계 원로 선배들을 초빙해 도내의 미래 성장 동력을 모색했다. 또 14개 시·군 여성회관장협의회를 운영하여 교육 및 강사 DB,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또 교육사업은 기능기술향상 및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도모했으며, 양성평등사업에선 전북센터문화 축제를 통해 25개 여성기관 및 단체 1,300여명의 도민들이 함께 하였다. 여성인재아카데미는 직접 시·군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여성중간관리자 발굴을 위해 노력했다.

센터장은 "양성평등 사회구축과 여성능력개발, 경제활동을 위해 2016년을 발 빠르게 달려왔다"며, "내년에는 올해 보다 더욱 최선을 다하여 여성과 가족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양성평등 전라북도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은 기자

완주 상관 기차길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서 '우수상'

완주군 상관면 기차길작은도서관이 14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2016년도 '전북도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기차길작은도서관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북도 작은도서관 평가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됐는데, 2012년도에는 최우수상을 받은 전례도 있어 상관면 작은도서관의 큰 힘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기차길작은도서관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운영한 '책놀이지도사 3급 양성과정'과 '엄마표 그림자 인형극 교육' 등을 통해 교육수강에만 그치지 않고, 동아리팀을 결성해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및 도서관 프로그램 기획운영에도 적극 동참함으로써, 도서관 프로그램의 참여자가 배움을 다시 도서관에 환원하는 등 재능 나눔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특히 2009년 3월 개관 이래 1만2000여권의 장서와 1400여명의 독서회원 가입 등 탄탄한 지역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주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왕기석 명창과 함께하는 비닐하우스 음악회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 김한)는 오는 17일 오후 3시 '왕기석 명창과 함께하는 비닐하우스 음악회'를 완주에 위치한 '공동창조공간 누에'에서 연다.

이날 무대는 추운 겨울, 공연장으로 변모한 따뜻한 비닐하우스 내부에 소리관이 마련될 예정이다. 왕기석 명창은 이창선(대금), 박상주(장단), 강현정(25현 가야금), 김연실(무용), 김하영(어린이관소리) 등과 함께 풍성한 소리판을 선보인다. 매 공연마다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는 왕기석 명창의 팔색조 매력을 다시 한 번 만날 수 있는 기회이다.

공동창조공간 누에(누에)가 주최하고 소리축제가 주관하는 이번 '비닐하우스 음악회'는 올해가 가기 전 지역민들을 위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무료 송년음악회다. 특별한 추억이 될 비닐하우스 무대는 물론 군고구마와 막걸리 등 소소한 먹을거리와 재미를 더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의 063)232-8394. /정혜은 기자

따라보며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12월 15일>

<p>▷쥐띠 48년생: 구설수 시비수가 있으니 언행에 주의가 필요하다. 60년생: 손아래사침으로 인해 근심할 일이 생기는 운이니 세심하게 관찰하고 신경써주어야 하는 운이다. 72년생: 원운이 따르니 하고자 하는 일에도 좋은 결실을 맺는 운이다. 84년생: 여성은 남성으로 인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p>	<p>▷소띠 49년생: 일의 결실을 맺으려면 뒷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61년생: 기존의 행동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자기 것이 아니면 욕심내지 말라. 73년생: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손재수가 따르는 운이다. 85년생: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은 운이다.</p>	<p>▷호랑이띠 50년생: 좋은 기운이 가택으로 향하니 집안에 화기가 돌면서 경사가 따르는 운이다. 62년생: 진행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적극 움직여라. 74년생: 말로 인한 화를 주의하라.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법이다. 86년생: 힘들었던 사람에게는 사람으로 인해 해결된다.</p>	<p>▷토끼띠 51년생: 자신의 예상보다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63년생: 천운이 따르는 운이나 겉손이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 75년생: 정신적으로 놀랄 일이 생기니 매사에 주의를 기울여라. 87년생: 급하게 서두르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p>
<p>▷용띠 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 생기는 운이니 주의하라. 64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성기신 일들이 발생하니 참견은 금물. 76년생: 빛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 88년생: 의욕이 앞서서 운이나 및 사람에게 실수 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p>	<p>▷뱀띠 53년생: 중요한 약속은 점심시간을 활용하라.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65년생: 소외된 사람에게 선심을 베풀면 좋은 일이 생긴다. 77년생: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일이 혼자서 해결하라. 89년생: 눈앞의 결실을 비리고 행동하지 말고 크게 생각하고 행동하라.</p>	<p>▷말띠 54년생: 꿈적으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니 미리 대비하라. 66년생: 연장자의 귀인이 나타나는 운이다. 겉손을 잃지 마라. 78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운이다. 90년생: 이성운이 좋아지는 때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도 좋은 운.</p>	<p>▷양띠 55년생: 대인관계, 외부적인 상황, 내부적인 상황이 전반적으로 막혀 있으니 조심하라. 67년생: 문서를 주고받기에는 좋은 운. 79년생: 건강에 주의하라.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91년생: 타인과 대립하지 말고 우회적으로 해결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p>
<p>▷원숭이띠 56년생: 문서운이 들어왔으니 문서를 주고받거나 서류를 정리하기에 좋은 운이다. 68년생: 작은 일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80년생: 남자는 여자로 인해서 일이 성사되니 동행하면 길하리라. 92년생: 시비수가 따르는 운이니 협동을 요하는 일은 미루는 것.</p>	<p>▷닭띠 57년생: 일을 크게 벌이지 말고 내부에 집중하라. 69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고 심신을 아지럽게 하니 마음을 비우는 것이 해답이다. 81년생: 사람으로 인해 마음상할 일이 생기는 운이다. 93년생: 먼 곳으로 움직일 일이 있다면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p>	<p>▷개띠 46년생: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잠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다. 58년생: 경거망동하면 후회할 일이 생긴다. 70년생: 동기간과 일을 도모하면 돈 잃고 사람 잃는 운이니 주의하라. 82년생: 뒷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이다.</p>	<p>▷돼지띠 47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합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라. 59년생: 기운이 왕성하지 못하니 내실을 다져라. 71년생: 금전운이 불리하다. 83년생: 뒷사람의 도움이 따르니 위험했던 실태가 풀리는 운이다.</p>